

광주시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매입 한다

5월 단체 등 보존 여론에 결정 100억 육박 매입가 마련 고민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매각기로 해 사라질 위기(광주일보 2019년 8월 28일자 6면)에 놓였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일보 보도 이후 5·18 중요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민간매각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적지가 아파트나 상업용지로 재개발돼 훼손될 것이라는 5월 단체들의 지적과 사적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자 광주시가 고민 끝에 매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적십자병원을 보유한 서남재단청산인척이 '89억원(감정가)+a'라는 막대한 매각가를 요구해 적정가격 협상은 넘어야 할 과제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5월 사적지'가

중정의 대상으로 전략해선 안된다고, 청산인척에 병원을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요구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사상자들이 치료를 받은 적십자병원이 공매 물건으로 나오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적십자병원은 토지 면적 2843㎡(860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민의 목숨을 살려낸 곳이다.

특히 1980년 5월 18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폭력으로 인한 최초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가 처음 이송됐던 병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부상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등 적십자 정신을 이어간 곳으로 유명하다.

5·18 당시 5월 21일 오후 도청 앞 집단발포로 발생한 수천 명의 사상자들도 이곳을 찾았고, 이후 시민들의 헌혈 행렬이 이

어서는 등 피를 나눈 광주공동체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이런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정해 1998년 이곳을 5·18 사적지 제11호로 지정까지 했다.

서남학원재단은 1995년 적십자병원(대지 2843㎡, 건물 3777.98㎡)을 인수해 서남대병원으로 운영하던 중 서남대가 재단비리 후유증, 경영난 등을 겪으면서 적자들을 이유로 2014년부터 폐쇄하고, 이후 청산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 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주적십자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시아 문화 다양성 증진센터, 어린이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구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광주시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의결, 재정투자 심사 등을 거쳐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100억원에 육박하는 매입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내년 1월 공매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최근 5월 단체의 중재

로 서남재단 청산인 척과 협의에 나섰으며, 청산인 측은 감정평가액인 89억 상당과 매입이 이뤄질 때까지 지연 이자와 관리인건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사전 행정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도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홍식 5·18구속수상자회장은 "구 광주적십자병원은 사적지로 지정된 이상 80년 5월 당시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매입 결정을 환영하며, 혹사라도 민간에 매각된다면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태 5·18기림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적 유물은 한 번 사라지면 복원하기 힘들다. 옛 전남도청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서 "광주적십자병원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서남재단청산인척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 광주시세계 임직원 등은 19일 오전 매장 1층 광장에서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9000만원을 기부하고 저소득층 28세대에 연탄 2000장·난방유 5000ℓ를 전달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동훈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김은영 초록우산재단 광주전남 본부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운암동 우미3차 아파트 저탄소 녹색아파트 '대상' 광주 북구 11개 단지 수상

광주 북구 지역내 아파트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저탄소 녹색아파트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19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실시한 '2019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평가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서 북구내 11개 단지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됐다.

올해로 10번째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북구에선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 12개 단지가 참여해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 장려상 5곳 등 11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총 8400만원의 인센티브와 우수아파트 현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운암동 우미3차아파트는 올해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하면서 RFID(무선 인식 기술) 기반 음식물종량계가 설치, 각 세대별 물 빼짐 통을 이용한 물기 제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난해 대비 절감률이 50.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달성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3, 달뜨기 00:53, 달지기 13:28

아침 기온 '뚝'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았다.

광주	구름많음	-1/7	보성	구름많음	-4/7
목포	구름많음	2/6	순천	구름많음	-1/8
여수	구름많음	2/8	영광	구름많음	1/6
나주	구름많음	-2/7	진도	구름많음	1/8
완도	구름많음	2/9	전주	눈온뒤갂	0/5
구례	구름많음	-3/7	군산	눈온뒤갂	0/5
강진	구름많음	-1/8	남원	눈온뒤갂	-3/5
해남	구름많음	-2/8	축산도	구름많음	5/8
장성	구름많음	-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북)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면바다(남)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면바다(동)	북서~북	1.0~1.5	북서~북	0.5~1.5

◇ 생활지수

- 높음: 감기
- 높음: 뇌졸중
- 보통: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출몰	01:18	08:26
	몰출	13:37	21:00
여수	출몰	09:30	03:35
	몰출	22:22	15:57

◇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2/8	0/10	1/11	1/10	4/11	4/10	1/8

광주대, 복지부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

광주대학교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지정하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광주대는 19일 학교 백인관에서 '치매극복 선도대학'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관심을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대는 간호학과·작업치료학과·심리학과가 남구보건소와 남구치매안심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치매극복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치매 교육과정 강화와 치매 연합동아리 결성, 치매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지역봉사 활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사회단체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일제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광주에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광주 추진위원회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의 힘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며 "일본의 사과와 보상, 진일적폐 청산, 자주 국가를 위해 노동자상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노동자상에는 일본의 잘못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진일적폐를 청산하려는 광주 시민의 염원이 표현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추진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시민추진위원회 모집, 자발적 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상 건립을 이뤄낼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스키장 안전사고 45%는 골절상...미끄러짐·넘어짐 주의보

소비자원 5년 761건 분석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이용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5시즌(1시즌은 전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안 스키장 안전사고 76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80개 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 등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을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지만,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사례도 있었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7.5%(74건), 염좌(뻘) 9.7%(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갈라지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안과 1566-9988